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주 안에 굳게 서서 [빌립보서 4:1-3]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명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설교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거명된 이유는 땀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고 교회의 연합에 해를 끼쳤으며 교회의 증인됨을 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길 원합니까? 이미 모든 기초 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적이 아닌 천국시민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합니다. 복음은 매일의 삶과 보통의 인간 관계 속에 적용됩니다.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야망이나 허영심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렇다면 이런 삶엔 불화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나아갑니다. 오직 주 안에 섭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 안에 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의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동의하며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들과 말들을 주관하심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의견대립도 불열의 결과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다른 의견과 동의하지 않음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랑(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복음에 동의하는 것은 연합에 가장 중요한 기본 형태입니다. 그것(복음에 동의하는 것)은 구원의 길과 경험 모두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뜻합니다.

불열은 사탄과 세상을 대항에 싸울 교회의 무기의 치명적 결함입니다. 적들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은 연합된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2).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는 —순두게란 이름은 동료란 뜻입니다— 그녀의 이름대로 누군가 동료로서 옆에 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명예는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 같은 속도로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명예의 기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를 화해시키고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 사실,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면, 우리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에 큰 신경을 쓰는 것보다 다른 동료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로 서는 것은 교회 연합에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20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20).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다투고 싸워야만 합니까? 복음을 삶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영원한 진리가 흘러넘쳐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주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의 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표시되고 인침을 받고 지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이곳 우리의 삶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20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20). 그렇지 않다면(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지 않다면) 다른 길은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강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다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다함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합시다. 다함께 주 안에 굳게 섭시다.